

## 2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I. 1999년도 대외무역 현황

#### 1. 개 관

19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90년대 이후 최소 규모였던 전년에 비해 2.6% 증가한 14억 7,955만 불을 기록하여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1990년 47억 2천만불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오다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마침내 20억불 선이 붕괴되었다. 1998년에는 기업기반 붕괴에 따른 생산부진,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9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14억 4,219만불까지 급감하였으나 1999년에는 수입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금액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액은 5억 1,496만불로 전년대보다 7.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9억 6,459만불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함으로써 수입 증가액이 수출감소액을 초과하여 총교역액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교역액의 증가는 '90년대 이후 최소교역액을 기록했던 '98년에 비해 교역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북한경제가 최저점을 통과한 징후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출입 구조면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북한의

산업생산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전년에 이어 계속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보다는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제품, 수산물, 기계·전기전자제품, 비(卑)금속, 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농임산물, 귀금속, 원목 등이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농임산물(땃짐, 송이버섯), 섬유, 광물제품(무연탄, 정제유, 마그네시아), 기계·전기전자제품, 비철금속(철강, 아연), 원목 등이며,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수산물, 플라스틱제품, 귀금속 등이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비중 25.4%)인 섬유제품은 '94년 이후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전기부족, 제한된 전력의 중공업 우선공급으로 섬유공장 가동이 여의치 않은 데 기인한다. 수산물, 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동물성 제품의 경우 전년대보다 무려 43.3%나 증가하여 전년의 기계·전기전자제품을 제치고 두번째로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것은 주로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증가에 기인하는데 북한과 일본기업과의 협력어로 사업추진으로 선박투입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수출은 전년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산물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세번째 수출품은 기계·전기전자제품인데 금액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의 수출감소는 전력부족,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생산공정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확대가 어려웠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품목은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급감한 '98년 중에도 수출이 증가하여 북한의 이 분야에 대한 위탁가공 생산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99년에는 수출이 다시 감소함으로써 산업정상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노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밖에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군을 형성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제품의 수출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그네시아 등 광물제품의 수출도 전년보다 3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전력공급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원활치 않은 데다 채굴장비 노후화, 가공설비 부족, 수송망 붕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화학공업,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이 41.1% 증가한 것이 특이할 만한데 이는 주로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전년도에 9.3% 증가한 수입의 경우 광물연료, 기계·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차량, 곡물, 화공품 원료,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기계·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차량, 플라스틱과 화공품원료 등이며,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곡물, 식료품, 에너지물자, 비철금속제품 등이다.

전년도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식량을 비롯하여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했던 에너지 자원(광물연료)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전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되었던 식량의 수입 감소(전년 대비 44.8%)는 북한의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99년도 기상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였고 국제사회의 비료지원이 증가한데다 대대적인 토지정리사업, 감자 증산운동 등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에 기인한다.

원유, 정제유, 코크스탄 등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총당되는 광물연료의 수입 역시 전년보다 6.5%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이 '98년에 이어 대형수력발전소,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노력을 집중한데다 석탄증산

에 힘입어 '99년도 북한의 전력생산이 다소 늘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99년 하반기 물부족으로 인해 전력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계·전기전자제품, 차량,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왜곡이 심화되어 왔던 무역구조에서 다소 탈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기계류·전기전자제품, 차량 등 공장가동을 위한 자본재 및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실물생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기계류의 수입증가는 북한이 발전소와 공장설비 보수 및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강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 인프라 정비를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수입상품 구조를 분석해 보면 북한 경제난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식량, 에너지 문제 중 식량부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에너지 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 수 있다.

## 2. 국가별 동향

### 2.1 중 국

수출 4,171만불(전년대비 27.2% 감소), 수입 3억 2,866만불(전년대비 7.6% 감소)로 교역총액은 3억 7,037만불(전년대비 10.3% 감소)에 그쳐 '90년 이후 최소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 북한-중국간 교역감소는 1999년 상반기에 20.9%나 감소하여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었으며, 하반기에 중국의 식량, 코크스 무상원조가 상반기의 교역부진을 상당부분 만회하였으나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의 감소로 전반적으로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감소한 것은 대중국 수입의 경우 광물성연료 및 식량의 수입이 무상원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업베이스의 거래감소로 각각 6.2%, 15%나 감소한데다 동식물성 유지, 조제식료품,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한

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어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99년중 북한의 대중국 최대수입품목은 원유, 쌀, 옥수수, 코코스, 밀가루, 석유 등의 순이나, 코코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상의 특징으로는 변경무역의 감소, 무상원조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최대수출품목은 목재, 철강제품, 어류, 광물성제품 등의 순이다. '90년대 이후 북중간 경제교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원조성 교역에서 상업메이스로 무역거래구조가 전환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상원조, 변경무역이라는 기존의 거래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9년의 경우 북중간 친선외교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원조액이 증가하였지만 일반무역액의 감소라는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일본

수출 2억 256만불(전년대비 7.7% 감소), 수입 1억 4,784만불(전년대비 15.6% 감소)로 교역총액은 3억 5,040만불로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11.2% 감소하였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 전지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였다. 전년도 최대 수출품이었던 섬유제품의 수출이 계속 감소세(7.4% 감소)를 보인 반면, 수산물의 수출이 급증하여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급증한 것은 북한과 일본 기업과의 합작어로 사업 추진으로 선박투입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섬유제품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위탁가공 교역품목인 전자제품의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연전선·케이블, 변압기유도자(inductor) 등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졌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의류, 무연탄, 사료용 곡, 송이버섯, 선철, 아연괴 등이다. 의류수출 감소는 전기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을 저하, 정치관계 악화를 반영한 소비자들의 북한상품 거부, 중국, 베트남, 태국 등과의 경쟁격화에 따라 위탁가공이 부진한데 기인한다. 사료

용 곡은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으로 수출이 급감하였고 송이버섯의 수출감소는 작황부진, 품질불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최대수입품목인 섬유제품과 전기전자부품의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차량, 곡물, 중유의 수입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하였다. 특히 곡물의 경우 '98년에는 '일본인저 고향방문사업' 협의시 약속한 식량지원분 2,700만불 상당이 이행되었으나 '99년에는 무상지원분이 대폭 감소하여 1,100만불에 그쳤다. 또한 중유의 공급도 '98년 1,428만불에서 495만불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경우 화물차의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승용차의 수입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다.

## 2.3 인도

수출 4,435만불(전년대비 20.9% 증가), 수입 9,800만불(전년대비 238% 증가)로 교역총액은 1억 4,23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116.8%나 증가하였다. '98년에는 교역총액이 1억불 미만으로 축소되었으나 '99년에 급증하여 '90년대 이후 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99년중 북한의 대인도 수입은 화장품, 철강, 가죽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수입이 급증하였다. 특히 주요 수입품목인 면사, 면직물, 의약품 등이 수입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인도가 북한의 섬유 원부자재 주요 수입기지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저렴한 인도의 의약품 가격이 수입급증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인도 수출은 인조수지, 기계류 등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프로젝트제품 수출이 급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품목에 걸쳐 북한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4 홍콩

수출 6,327만불(전년대비 20.6% 증가), 수입 6,051만불(전년대비 100.2% 증가)로 교역총액은 1억 2,378만불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49.7%나 증가하였다. 홍콩과는 '93년까지 계속 1억불 이상의

교역액을 유지해오다 '94년 이후 교역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97년에 북한이 홍콩에 금과를 대량 수출함으로써 '90년대 이후 최대 교역액인 2억 1,275만불을 기록한 바 있다.

'98년에는 북한의 대홍콩 금과수출 급감으로 다시 1억불 미만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99년에는 무역액이 급증하여 1억 2,378만불을 기록하였음에도 인도의 상승세에 밀려 4위에 그쳤다.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북한의 대외교역 창구로서 홍콩의 위상 강화 가능성이 꾸준히 예상되어 왔다. '99년에는 특히 홍콩의 대북한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홍콩이 북한의 물자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독일

수출 2,370만불(전년대비 20% 감소), 수입 3,256만불(전년대비 33.6% 증가)로 교역총액은 5,626만불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독일이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의류 등 섬유제품인데 1,933만불로 전년의 2,416만불에 비해 20%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5%나 된다. 독일의 대북수입이 감소한 것은 '97년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구상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청산계정전문회사의 활동이 '98년 이후 계속 부진함으로써 광물자원, 의류, 신발 등의 수입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독일의 대북한 수출은 모든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 운송기기의 대북수출이 괄목할 만하다. 독일의 대북한 수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북한이 영농구조 개선, 운송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계 및 차량을 다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6 싱가포르

수출 272만불(전년대비 17.2% 증가), 수입 4,806만불(전년대비 41.8% 증가)로 교역총액 5,078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40.2%나 증가하였다. 북

한과 싱가포르간의 교역증가는 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양국간 교역구조는 북한의 대 싱가포르 수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최대 수입품목인 석유(대 싱가포르 수입의 41.4%)를 비롯하여 담배, 동식물성유지,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유류제품은 '96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이후부터는 금액이 커지고 있어 북한의 석유조달창구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은 주화(동전), PVC원료, 담배, 인삼근, 피아노 등이다.

동전수출(총 수출의 45.6%)은 '99년 3월 개최된 싱가포르 국제코인 전시회를 계기로 '97년에 이어 개개되었다. 그러나 '98년중 200만불로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유류제품 수출은 5만 3천불로 불과하여 '99년도 북한의 원유임가공생산이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7 러시아

수출 161만불(전년대비 80.9% 감소), 수입 4,851만불(전년대비 14.1% 감소)로 교역총액은 5,012만불로서 전년에 비해 22.8% 감소하였다. '99년중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코크스탄, 차량, 원목, 철강 등이다. 수입에서의 특징은 '98년의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철도레일, 비료, 원목 등의 수입이 급감한 반면, 석유, 코크스탄, 차량, 철강 등 광물연료와 운송기기류의 수입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수출품목은 섬유제품, 어선, 무기화합물 등이다. '98년에 최대수출품이었던 TV, VCR, 전자오븐 등 전자제품의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3월 러시아 카라신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신조약에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에는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신북러친선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4월에는 '북러문화과학교류협정'이 체결되었고 오는 6월말에는 '제3차 북

러경제무역협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양국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복원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위기 극복 등 내부문제 해결에 정책중심이 두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을 원조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지불능력 부족으로 상업베이스에 기초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양국관계의 급속한 복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의 확대로 이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8 태 국

수출 324만불(전년대비 140.7% 증가), 수입 3,471만불(전년대비 277.9% 증가)로 교역총액은 3,79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260.4%나 증가하였다. 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설탕, 고무, 섬유제품 등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변화인데 기존의 주요 수입품목인 쌀 대신 기계류, 섬유 원부자재, 설탕, 고무 등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태국은 북한의 쌀 공급기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이 1991~1996년중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97년의 경우 태국의 대북한 쌀 수출액이 1,128만불에 달했으나 '98년 162만불, '99년 10만 6천불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기계류, 설탕, 고무, 섬유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역규모는 확대되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종이, 섬유제품 등이다.

## 2.9 방글라데시

수출 2,425만불(전년대비 16.1% 감소), 수입 340만불(전년대비 521.6% 증가)로 교역총액은 2,76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방글라데시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종이, 기계류, 섬유제품, 비철금속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가죽, 황마 등이다. 북한과 방글라데시간 교역은 '99년 6월21일 쌍방간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방글라데시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마드하파라 채석광산 합작투자에 이어 시멘트 생산설비 공급(110만불 상당), 타이어 합작생간계약(820만불)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전망이다.

## 2.10 영 국

수출 241만불(전년대비 90.1% 증가), 수입 2,214만불(전년대비 24% 증가)로 교역총액은 2,455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다. 북한은 영국으로부터 주로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종이제품, 유기화합물,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는 의류, 전자제품, 귀금속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의류수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2000년 1월 북한과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계기로 북한의 대 EU외교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EU의 핵심국가인 영국과의 관계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9년 10월 북한 실무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하였고 2000년 5월에는 영국 외무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치대화를 가질 예정으로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 2.11 미 국

수출 2만9천불, 수입 1,126만불(전년대비 152.8% 증가)로 교역총액은 1,128만 9천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153.5%나 증가하였다. 수입품목을 보면 분유가 5,209천불, 주사기 등 의료용품이 108만불, 옥수수가 101만불, 원조용품(의약품 및 식량)이 309만불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입품목은 모두 식품, 의약품 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물품으로 추정된다. '99년중 북한이 전압조정기 3대(2.9만불)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북경제 제재조치로 인해 미국이 지난 '92년 북한산 신발 8천불어치를 수입한 이후 7년동안 전혀 수입이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 3. 수출상품동향

1999년도 북한의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수출은 전년에 이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제품, 수산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비(非)금속, 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농임산물, 귀금속, 원목 등이다. 북한의 수출감소는 벗짚, 송이버섯 등의 대일본 수출 급감, 위탁가공생산 섬유제품의 수출 감소세 지속, 광물제품, 기계·전기전자제품, 비금속제품의 수출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벗짚, 송이버섯의 대일본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사료용 벗짚의 경우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으로 대일본 수출이 위축되었고 송이버섯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품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기는 하나 수출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광물제품의 경우 중국으로의 정제유 및 철광, 동광 수출이 감소하였고 일본으로의 무연탄, 아연과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대싱가포르 석유수출, 프랑스로의 마그네시아 수출이 감소하였다. '98년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출증가를 기록하였던 기계·전기전자제품의 경우 '99년에는 9.6%의 수출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제품도 수출이 감소하였는데 주로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수산물, 화학공업제품, 귀금속류에 불과하다. 수산물은 주로 일본으로 바지락, 백합조개, 게 등의 수출이 늘어났으며 중국으로 게, 조개가 덴마크로 냉동대구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99년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붕괴된 산업기반이 복구되지 않고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감소로 공장가동이 제대

로 되지 않아 그나마 수출을 주도해왔던 1차상품 수출마저도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북한은 수출 구조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1차상품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품질,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생산능력이 없어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수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수입상품동향

1999년도 북한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9.3% 증가하여 수출감소분을 초과함으로써 총교역액은 증가하였다. 수입부문에서의 특징은 곡물, 원유 등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물자수입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과 기계류, 운송기기를 비롯한 자본재와 화학공업제품, 섬유원부자재 등 산업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에너지, 기계·전기전자제품, 섬유, 차량, 식량,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등이다. 우선 '98년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곡물 등 식량수입이 '99년에는 44.8%나 감소하여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체 수입이 불가능한 광물연료의 경우 '99년 최대 수입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98년에 비해 6.5% 감소하여 북한의 전력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수입감소는 수출감소와도 직결되는데 북한의 상품별 수출구조를 보면 공업생산품, 광물, 비철금속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북한의 식량, 에너지 수입비중이 '98년에는 전체수입의 44.2%였으나 '99년에는 31.1%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기계류, 차량,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총교역액 증가를 주도하였다. 특히 기계류의 수입이 급증하여 북한이 산업정상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노후화된 공장설비, 생산시설은 전력부족과 더불어 북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북한이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제한된 외화자원을 식량수입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류의 수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업생산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악한 운

송사업의 해소를 위한 차량의 수입증가, 의류 원부자재, 화학공업제품 등 공업생산원료의 수입증가 등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입품목인 광물성 생산품, 즉 에너지자원의 수입총액이 감소하여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아직 원활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설비보수 및 신규투자과 함께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9년 북한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식량부족, 에너지난이라는 두가지 문제중 식량문제가 다소 완

화되어 북한이 일단 최악의 경제난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정상화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에너지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II. 남북교역 현황

### 1. 남북교역 동향

1999년 남북교역액은 333,437천불로 전년도 221,943천불에 비해 50.2% 증가하여 남북교역규

<표 3-1> 남북교역실적

(단위 : US\$천)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반출	5,547	10,563	8,425	18,248	64,435	69,638	115,269	129,679	211,832
반입	105,722	162,863	178,166	176,298	222,855	182,399	193,069	92,264	121,604
합계	111,269	173,426	186,591	194,546	287,290	252,037	308,338	221,943	333,437

<표 3-2> 연도별 남북교역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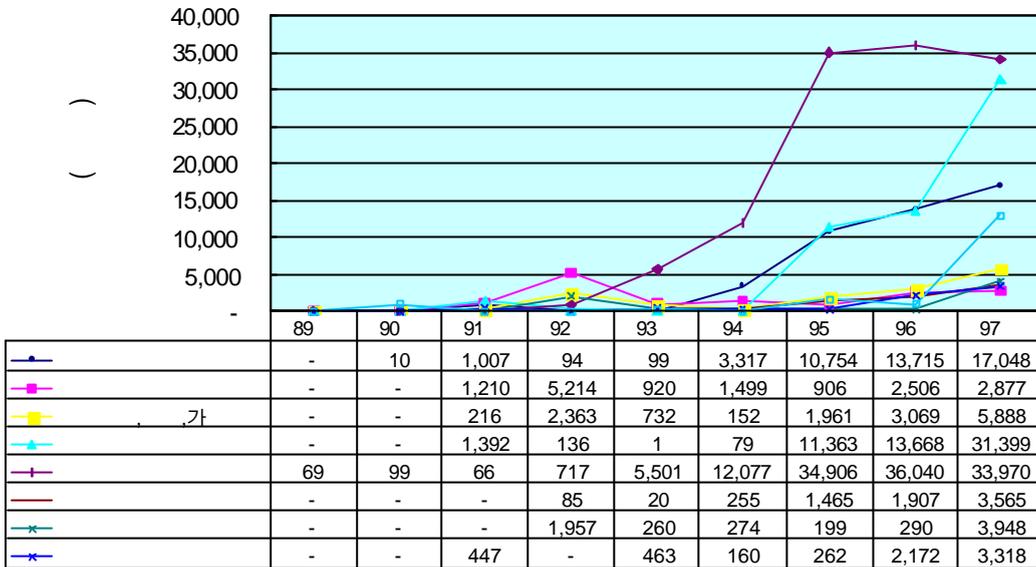
(단위 : US\$천)

종 목	'98		'99		증감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21,798	23.6	47,868	39.4	119.6
광산물	765	0.8	2,462	2.0	221.7
화학공업생산품	2,427	2.6	2,494	2.1	2.7
섬유류	38,794	42.0	45,513	37.4	17.3
철강·금속제품	20,254	22.0	16,120	13.3	-20.4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698	0.8	1,557	1.3	123.2
전자 및 전기	3,518	3.8	2,838	2.3	-19.3
기타제품	4,010	4.3	2,707	2.2	-32.5
기타 (코드 불확실)	-	-	45	0.0	-
합계	92,264	100.0	121,604	100.0	31.8

<표 3-3> 대북한 반출품목 구조

(단위 : US\$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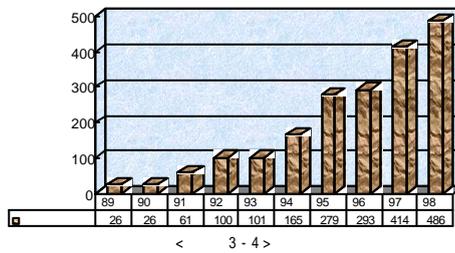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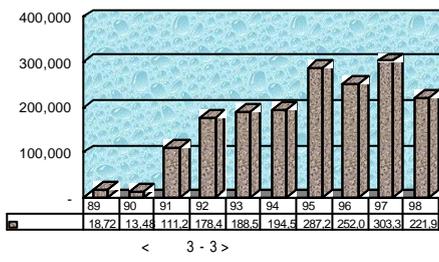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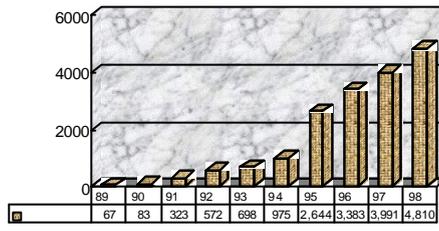
종 목	'98		'99		증감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차산업	19,944	15.4	17,834	8.4	-10.6
화학공업생산품	5,054	3.9	42,691	20.2	744.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717	3.6	4,962	2.3	5.2
비금속광물제품	21,467	16.6	50,542	23.9	135.4
섬유류	20,543	22.0	36,286	17.1	27.1
생활용품	3,707	2.9	3,832	1.8	3.4
철강·금속제품	9,475	7.3	16,953	8.0	78.9
전자 및 전기	5,495	4.2	7,307	3.4	33.0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28,923	22.3	26,985	12.7	-6.7
잡제품	2,355	1.8	3,484	1.6	48.0
기타(코드 불확실)	-	-	955	0.5	-
합계	129,679	100.0	211,832	100.0	63.4



<그림 3-1> 연도별 품목별 반입 현황

모가 가장 컸던 1997년 308,339천불에 비해서도 8.1% 증가하였다. 이중 대북한 반입은 121,604천불로 전년 92,264천불에 비해 31.8% 증가하였고 반출은 211,832천불로 전년의 129,679천불 대비 63.4%나 증가하였다. 1999년의 남북교역액이 전년에 비해 50.2% 증가한 것은 '98년 IMF경제상황에서 환율상승,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크게 악화되었던 남북교역여건이 환율안정, 국내 경기회복 등으로 호전되었고, 비료 대북지원물품과 금강산 관광사업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반출이 증가한 데다 남북교역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교역수지를 살펴보면 남한이 명목상으로는 90,228천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거래성 교역(반출 144,279천불/반입 122천불)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53,929천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을 대국간 거래로 인정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남북교역액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남북교역액은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며 '99년 북한 무역총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품목별 반입구조를 보면 농림수산물 섬유류 철강 금속제품 등이며, 농림수산물과 섬유류의 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19.6%, 17.3% 증가한 반면 철강금

속제품의 반입이 2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대외 수출상품 구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으로부터 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

<표 3-4> 반입시 승인을 요구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DE)	품 명	연번	품목번호 (HSK C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7	0307-59-1020	낙지(냉동)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28	0402-10-1010	말지방유(설탕·감미료 이황가/농축/지방분 1.5%이하)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29	0402-10-1090	분유(말지방유 이외/설탕·감미료 이황가/농축/지방분 1.5%이하)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제·이분도제)	30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이황가/농축/지방분 1.5%이하)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복채 절단)	31	0402-21-1000	견지방유(설탕·감미료 이황가/농축/지방분 1.5% 초과)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복채는 것)	32	0402-21-9000	분유(견지방유 이외/설탕·감미료 이황가/농축/지방분 1.5% 초과)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제·이분도제)	33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이황가/농축/지방분 1.5% 초과)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복채 절단)	34	0402-91-1000	무당연유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복채는 것)	35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제·이분도제)	36	0402-99-1000	가당연유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넙적다리·어깨살/복채 절단)	37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38	0403-90-1000	버터일크
13	0207-12-0000	닭고기(아절단/냉동)	39	0404-10-1010	유강분말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40	0404-10-1090	유강(유강분말 이외)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41	0405-10-0000	버터(일크에서 얻어진 것)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42	0405-90-0000	일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방 유(버터 이외)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43	0409-00-0000	천연꿀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아절단)	44	0410-00-3000	로얄제리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45	0701-10-0000	감자(종자용)
20	0301-99-9070	이꾸라치(활어)	46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21	0303-79-9093	홍어(냉동)	47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22	0303-14-9000	꽃게(냉동)에 한함	48	0703-20-0000	마늘(신선·냉장)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양장·염수장)	49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24	0306-24-1000	꽃게	50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25	0307-29-1000	가리비(냉동)	51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26	0307-49-1020	오징어(냉동)	52	0712-20-0000	양파(건조)

연번	품목번호 (HSK CDE)	품 명	연번	품목번호 (HSK CDE)	품 명
53	0712-90-1000	마늘(건조)	87	1006-10-0000	벼
54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88	1006-20-1000	메현이
55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89	1006-20-2000	관현이
56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90	1006-30-1000	알쌀
57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91	1006-30-2000	참쌀
58	0714-20-1000	고구마(신선)	92	1006-40-0000	깨이
59	0714-20-2000	고구마(건조)	93	1007-00-1000	수수(종자용)
60	0714-20-3000	고구마(생강)	94	1008-10-0000	메밀
61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95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드 등 이외)
62	0714-90-9090	서류(기타)	96	1102-30-0000	쌀가루
63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97	1102-90-1000	보리가루
64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98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65	0802-40-1000	팜(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99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66	0802-40-2000	팜(탈각한 것/신선·건조)	100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67	0802-90-1010	갯(탈각한 아니한 것/신선·건조)	101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68	0802-90-1020	갯(탈각한 것/신선·건조)	102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69	0802-20-1000	감귤(신선·건조)	103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70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104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71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푸르트 이외/신선·건조)	105	1103-21-0000	밀(펠리트)
72	0810-90-3000	대추(신선)	106	1103-29-0000	쌀(펠리트)
73	0810-40-2000	대추(건조)	107	1103-29-2000	보리(펠리트)
74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 이하 포장)	108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75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109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76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110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77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111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78	0910-10-0000	생강	112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79	1003-00-1000	액주액	113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80	1003-00-9010	겉보리	114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81	1003-00-9020	쌀보리	115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82	1003-00-9090	보리·쌀보리 이외	116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83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보리(액주액·겉)	117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84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118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85	1005-90-2000	옥수수(팥콘용)	119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86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팥콘용 이외)	120	1107-10-0000	액아(볶지 아니한 것)

연번	품목번호 (HSK CDE)	품명	연번	품목번호 (HSK CDE)	품명
121	1107-20-1000	액아(볶은 것/냉연한 것)	151	1302-19-1220	통삼정분
122	1108-11-0000	밀 전분	152	1302-19-1290	통삼엑스(통삼정·통삼정분 이외)
123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53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24	1108-13-0000	감자 전분	154	1702-11-1000	유당
125	1108-14-0000	애너욱 전분	155	1702-19-1000	기타 유당
126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56	1702-90-1000	인조꿀
127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애너욱· 고구마 이외)	157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 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28	1108-20-0000	이눌린	158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 의 것은 제외)
129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59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 죽(쌀가루의 것)
130	1201-00-9000	대두(기타)	160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 죽(보리의 것)
131	1202-10-0000	낙화생(이탈라)	161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 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132	1202-20-0000	낙화생(탈라)	162	1901-90-9091	기타 조제식품(쌀가루의 것)
133	1207-40-0000	참깨	163	1901-90-9092	기타 조제식품(보리가루의 것)
134	1211-20-1100	수삼	164	1901-90-9099	기타 조제식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35	1211-20-1210	백삼(본삼)	165	1902-19-2000	당면
136	1211-20-1220	백삼(미삼)	166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파넛버터 이외)
137	1211-20-1240	백삼(잡삼)	167	2009-30-9000	감귤류 쥬스(단일 감귤류 쥬스/헤몬 ·라임 이외)
138	1211-20-1310	통삼(본삼)	168	2103-90-9040	메주
139	1211-20-1320	통삼(미삼)	169	2106-90-3021	통삼차
140	1211-20-1330	통삼(잡삼)	170	2106-90-3029	통삼제조품(통삼차 이외)
141	1211-20-2210	통삼분	171	2106-91-9091	로얄제리, 쌀꿀 조제품의 것
142	1211-20-2220	통삼 타브렛·캡슐	172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제인(통삼의 것)
143	1211-20-2290	통삼분말(통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73	3505-10-3000	베소건분
144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74	3505-10-4000	프리젤라타나이즈드 전분
145	1211-20-9200	인삼종자	175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46	1211-20-9900	인삼(이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76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47	1213-00-0000	뱀꼬리 현삼	177	3505-20-1000	전분 글루
148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78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49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케일 이외)	179	3505-20-9000	기타 글루
150	1302-19-1210	통삼정			

3. 사업자 승인 현황

〈표 3-5〉 사업자 승인

기 업	사업상재자	사 업 내 용	금 액 (\$10,000)	승인일
*녹십자(합작)	광명성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평양, 통일구역)	300만불	'95. 9.15
*미흥식품(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97. 5.22
파라우수산(합영)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원산, 원주)	300만불	'97. 8. 1
금오식품(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 고구마전분 제조(평양)	40만불	'97. 8. 1
*대명수산(주)사(합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나진, 원산)	200만불	'97.10.14
롯데제과(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생산 및 판매(평양)	575만불	'98. 1. 9
안성개발(합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50만불	'98. 3.13
*두레마을 영농조합 법인(합작)	라선경제 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나진, 선봉)	800만불	'98. 4. 8
*국제옥수수재단 (조사, 연구)	농업과학연구원 → 농업과학원(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 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평양, 기타)	30.9억원(220 만불)→110억 원('99.3.25)	'98. 6.18
*백산산업(합영)	선봉군 은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 진주 등 버섯류 생산, 수출(나진, 선봉, 선봉군읍)	81만불	'98.10.28
(주)해주(합작)	광명성 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서해인근)	299만불	'98. 1. 8

- 출처: 1. 북한 경공업 발전 실행계획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검토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6  
 2. 클릭 북한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3. 대북경제정보 심층기획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4. KOTRA 북한경제정보 홈페이지(www.kotra.or.kr), 2000  
 5.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www.hri.co.kr), 2000